

일주문

도굴꾼 검거 경관 감사패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28일 오전 11시30분 고창 선운사에서 성보 도난범을 검거한 이경필 임실경찰서장과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27일 설법전서 취임식
증언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은 27일 오후 2시 총무원 청사에서 있는 서울 성북동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02)745-2030

호국비공사에 위문품 전달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은 20일 경기도 파주 군방당 호국 비공사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촉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은 21일 서울특별시 제2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촉패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실천승가회 송년회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은 22일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송년회 및 실천승가회 홈페이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천일기도 만등불사
법지 부산 대원사 주지는 1월 9일 오전 10시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을 초청해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무불선원 카오스론 강의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28일 저녁 7시 강남 무불선원에서 '불교와 카오스이론'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김 교수는 매일 1회씩 강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시대 출판 포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27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디지털시대 변화의 산다'라는 주제로 출판 포럼을 개최한다.

겨울방학 청소년 참선교실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와 함께 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참선교실을 연다. (051)466-4080

부음
리선행(형성 대승사 회주)법사의 빙부 서명성옹이 22일 새벽 5시 자택에서 자병으로 입적했다. 향년 76세. 발인은 24일 오전 9시. (017)420-2200

“한국불교-현대철학 접목 기대”

한·인 불교교류 물꼬 튼 조용길 교수

“다종교 사회인 인도에서 불교학자들이 대승불교의 화엄철학을 토대로 종교의 본질을 해석함으로써 종교간 이해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4~5일 ‘한·인 불교문화교류사’를 주제로 인도 델리에서 열린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조용길 교수(동국대 BK연구단 단장)는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조 교수는 “세미나를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한·인 불교학계의 첫 교류라는 데 비중을 두었지만, 개최한 후 양국의 불교학계가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인도의 불교학자들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 불교학계의 연구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인도 불교학계와의 물꼬를 트고, 또 현지 한인 유학생과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양국의 불교학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지’도 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해 조 교수는 “한·인 불교학계의 교류는 한국에는 현대 철학과 비교 연구 성과, 인도에는 끊임없이 이어져온 한국 불교문화의 본질을 수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우선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40여 명의 한인 유학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한 방침이다. 이들에게서 인도 불교학계의 연구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인도 불교학계와의 물꼬를 트고, 또 현지 한인 유학생과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양국의 불교학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지’도 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성낙구·박필상씨 실상문학상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연) 주최로 19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3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에서 성낙구씨(사진 오른쪽)와 박필상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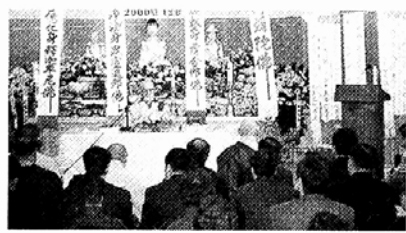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포교에 앞장서온 문학가를 발굴하는 취지로 마련된 실상문학상 본상에는 현대문학으로 등단, ‘두려움 시절’ 등 수필로 심성을 일깨워온 성낙구씨(수필가)가 수상했다. 또 우수상에는 ‘손을 씻으며’ 등의 시조집을 내며 활동해 온 박필상 부산불교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 12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하 조계종 총회위원장을 비롯해 인택 총무부장, 장국 총회포교분과위원장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은 “오늘이 있기까지 성심 성의껏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신도들에게 상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포교 활성화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지하철 삼존불 봉안

서울지하철공사 법무회(회장 민병훈)는 19일 종합운동장역 법당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연 스님을 비롯해 서울지하철공사 김정국 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정연스님은 “지하철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안에는 차별과 양분함이 없는 곳”이라며 “이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웃과 함께하는 지하철법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0년을 빛낸 불자들 / 사회를 따뜻하게... 불교위상 높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디지털 대경쟁 완성 등 불교계에 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가운데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업적, 아름다운 보살행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불교의 위상을 드높인 불자들도 적지 않았다.



한 고승들의 행장을 압축해 사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사찰에 소장된 불화를 모아 1차 총 20권의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한 범하 스님(성보문화재단 연구원 이사장)은 10년동안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직지사 등 11개 본·말사를 비롯해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의 불화 총 1,700여 점을 정리해 불교미술사와 학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지관스님 고승비문 332기 정리
수경스님 지리산 살리기 앞장
성관스님 인권·평화 불씨 지퍼

범하스님 한국의 불화 집대성
박광서씨 총선·아셈활동 이끌어
박홍국씨 안계사·옥명사지 발굴

연대'를 발족시킨데 이어 8월30일 189개 종교·환경·사회단체가 연대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을 창립,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는 드물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적극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10월23일부터 11월19일까지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를 직접 실시하면서 국토정정을 몸으로 발원하는 생명운동을 결쳐 환경운동에 불교비임을 일으켰다.



최순용 검사(전주지방법검찰청)는 올해도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3월 28일 최 검사는 국보로 지정된 <감자은니묘법연화경>을 은니·밀매하려던 사찰 신도회장과 도굴 문화재를 일본으로 빼돌리려한 교수 등 6명을 적발했다. 문화재와는 상관없는 특별수사팀을 맡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결과다.

안홍부 씨
최순용 씨
에서 전국공무원불자회 성지순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공무원불자회 창립을 이끌어냈다.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산중에서 조용하게 화장하여 흩어버려라.” 평생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11월 14일 왼쪽에 든 조계종 원로 응답 스님이 남긴 이 말에서 물랑주의에 지든 불교와 세상에 대한 신선한 사후후였다. 49재도 지내지 말게 하고 평생모은 7천만원의 생명의나눔신탁회 등이 기증한 응답스님은 세속에 살면서도 속진에 물들지 않았던 한승이 연구자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김주필 기자

안홍부 씨
최순용 씨
에서 전국공무원불자회 성지순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공무원불자회 창립을 이끌어냈다.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산중에서 조용하게 화장하여 흩어버려라.” 평생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11월 14일 왼쪽에 든 조계종 원로 응답 스님이 남긴 이 말에서 물랑주의에 지든 불교와 세상에 대한 신선한 사후후였다. 49재도 지내지 말게 하고 평생모은 7천만원의 생명의나눔신탁회 등이 기증한 응답스님은 세속에 살면서도 속진에 물들지 않았던 한승이 연구자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김주필 기자

대원사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에서는 불우이웃과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